

친환경 농사의 주역은 '농기계'

아침을 열며

정연권

색향미야생화연구소장



농부에게 6월은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한 달이다. 농사는 때가 있는지라 손발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농부들은 거의 고령이다. 아니다. 초고령이다. 허리에 복대와 무릎엔 보호대를 두르고 일하고 있다.

이제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트랙이 농로를 분주히 오가고 드론으로 병해충 방제를 한다. 스마트폰도 중요한 농기계가 됐다. 농부 간 연락과 농자재 주문, 정보교환, 온라인판매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들녘엔 농기계 소리가 우렁차다. 농부보다 농기계가 많다.

구례군 주요 농기계 보유 수는 트랙터 715대, 이앙기 600대, 콤팩트 207대 등이다. 경지면적이 적은 구례가 이 정도면 전국에는 꽤 많은 농기계가 보급돼 있을 터다. 고가 농기계를 갖춘 한 농부는 "빠 빠지게 농사지어 농기계값 주고, 이자 갚고 남은 게 별로 없다. 그나마 직불금이 있어 살아간다." 푸념했다. 더욱이 아쉬운 점은 대형트랙터나 크라스콤팩트 등 국산 농기계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왜 비싼 외국제품을 쓰냐고 물으면 "성능이 좋다"고 한다. 이럴 수가 있는가. 반도체와 배도 잘 만드는 대한민국에서 성능 좋은 농기계를 만들지 못하니 아쉽다. 자본시장 결과물이라는 생각에 씁쓸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구례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이 환영을 받고 있다. 고가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 해주니 부

담이 없다. 박승철 주무관 등 직원들이 친절하게 임대를 도와주고 수리도 신속하게 해준다. 마을로 찾아가서 수리도 돕는다. 아울러,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장이 완비되어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정부 쌀 감축 정책에 콩으로 전환한 농부들이 많다. 소득도 벼보다 나은 편이라 한다. 구례군 친환경 콩 재배는 20ha에 31농가가 참여했다. 비닐 멀칭, 종자, 친환경 약제 등을 군에서 50~70% 보조해 줬다. 생산물은 자연드림에서 구매해 주기로 했다. '구례콩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친환경 콩 재배체계가 구축됐다.

6월 초부터 친환경 콩 심기를 시작해 7월 초 마무리됐다. 조합원들의 눈에 파종해주고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트랙터에 파종기를 부착해 멀칭을 깔고 종자를 3~5알씩 넣고 간다. 1단지(900평)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런 파종기가 없으면 친환경 콩 농사가 힘들 수밖에 없다.

고정주 회장의 열정적이고 엄청난 체력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 덕분에 파종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됐다. 노련한 장상근 총무가 파종기를 운전했다. 필자는 인부를 현장에 데려다주고 퇴근시키는 일을 맡았다. 현장 이동, 새참과 자재 운반 등 보급지원 역할도 했다.

새벽에 인력사무소에 나가면 외국인 인부들이 많다. 러시아, 베트남 사람들과 일을 많이 했다. 눈치도 빠르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하며 무더위에서도 거침없이 일을 잘했다. 오후 5시가 넘으면 시간당 추가 수당 2만원을 준다. 다음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거나 파종면적이 1~2시간 정도 남을 때 하는 긴급 처방이다. 우리나라 인부들은 콩 파종작업을 꺼린다. 힘들기 때문이다. 무더위에 4명

이 파종기를 따라 하는 일은 극한직업의 현장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외국인 근로자가 해주니 감사하다.

필자도 친환경농법으로 '쥐눈이콩'을 심었다. 친환경 비료와 이온수를 뿌리고 로터리 작업을 했다. 파종기가 생분해되는 멀칭을 깔고 두둑에 2열씩 파종했다. 고랑에는 제초매트를 깔았다. 공밭이 검은 무대가 펼쳐졌다. 새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기장을 덮었다. 이제는 청색바다가 됐다. 파종 며칠 후 비가 제법 내려서 밭이 되기 시작했다. 포기당 본잎이 2~3장 나와서 모기장을 벗겼다. 이제 새들이 피해가 없다고 한다. 새들은 먹고 살기 위해 습격한다. 이를 지켜 먹고 살려는 농부들과 치열한 전쟁이다. 푸른 콩들이 나란히 도열 했다. 검은 무대에 녹색 물결이 춤추니 흐뭇하다.

무더위로 파밤나방 발생이 심했다. 드론으로 친환경 약제로 방제했으나 효과가 낮았다. 등집 분무기로 두 번이나 했다. 일반 농약을 치면 수월한데 생태환경과 소득 차원에서 안타깝고 난감한 일이다. 벌레가 먹은 콩잎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새벽에 나가 손으로 잡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콩 포기를 털어서 떨어지는 벌레를 죽이는 일은 징그럽고 마음도 편치 않았다. 새벽부터 엄청난 살생을 했기 때문이다. 어찌하랴. 콩을 지키는 일이고 콩들은 좋을 것 아닌가.

지붕 없는 교실에서 친환경 농부들과 진솔한 대화도 나누고 애환과 고충을 들었다. 많은 깨우침과 영감을 받았다. 생명을 살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억척스럽게 일한다.

이제 농심인가. 고행인가. 희생인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존경스럽다. 친환경 농부들이 제대로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社說

해수부 부산 이전, 광양항 외면은 안돼

지역 맞춤형 지원 병행돼야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이지만, 그 여파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항만 정책의 중심이 부산으로 기울면서, 과거 '투포트(Two-Port)' 정책의 축이었던 광양항은 갈수록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광양항은 한때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내 제2의 항만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차전지 원료 수입과 관련한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관심과 투자는 부산항에 집중되고 있다. 수심 제한과 낙후된 기반시설, 물동량 감소 등 광양항의 위상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광양항에 7464억원 규모의 자동화 기반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내용은 기술 실증 중심에 머물러 있다. 수심 확장이나 대형 선박 기항 유치 등 항만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자동화 사업만으로는 거점 항만으

로의 재도약은 요원하다. 실질적인 물동량 증대 효과 없이 '기술 시범'에 그친다면, 지역경제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광양항 물동량 감소는 곧바로 광양시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세 수입 감소는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 단순히 지역 항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 전체의 문제다. 항만은 단순한 물류 기지가 아니라 지역 산업과 도시 생태계 전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붕괴는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해수부 이전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해양항만 정책의 행정 거점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 외 지역은 자연스레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인 균형발전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부산에 정책이 집중되는 만큼, 광양항에는 맞춤형 보완책과 독자적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광양항을 되살리려면 댐질식 지원이 아니라, 항만 기능을 재정비하고 수심 확보와 대형 선박 유치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체감'을 원한다면, 광양항을 외면해선 안 된다.

언제까지 '피해 최소화'만 고민할 텐가

'탄소중립' 모두가 실천 나서야

9일 오전 9시를 기해 서해와 남해 연안 등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전남도도 양식장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다 환경 변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모두의 관심과 함께 양식장 구조 개선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때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서해와 남해 중·서부, 제주 연안의 수온이 불과 5~6일 사이에 하루 평균 수온이 2~4도 급상승했다. 특히 주요 관측소인 여수 신월의 경우 지난 6월 28일 23.5도에서 7월 3일 26.8도까지 치솟았고 같은 기간 강진은 22.3도에서 25.6도까지 올라갔다. 전체적인 남해안의 수온도 20.5~24.9도, 서해안이 21.1~30.7도로 평년 대비 1도 가량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장마 기간이 짧고 폭염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돼 주의보 발령 시기도 16일이나 앞

당겨졌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피해는 이미 일상이 됐다. 당장 지난해 전남도에서는 고수온으로 여수와 고흥 등 10개 시·군 990여가에서 574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적조 피해도 우려된다. 이미 지난 6월 광양 묘도에서는 혼합적조가 다량 발생해 수산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고수온도 문제다. 현재 바다에서 양식이 이뤄지는 수산물의 서식 한계수온은 강도다리가 섭씨 27도, 조피볼락 28도, 참전복 29도 등이다. 일부 서해안의 경우 벌써 한계수온을 넘어선 셈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수산당국과 어민이 철저하게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전남도는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고수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양식시설 밀집 해역의 어민들도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재난으로 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한 지금이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16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238명(사망 1명 포함)으로,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0000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서석대

'기저효과(Base Effect)'는 경제 지표 해석에서 자주 인용되는 개념이다. 기준이 되는 전년도 실적이 유난히 낮을 경우, 그다음 해의 수치는 실질적인 개선보다 과도하게 좋아 보이는 통계적 현상을 말한다.

취임 한달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된 리더'라는 호평을 받는 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가 만든 '기저효과'가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다. 실제 기저효과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남긴 여러 장면들이 있다. 도어스테핑 자리에서 기자들을 향해 "전 정권 장관이 더 훌륭했느냐"고 반문하던 모습,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진 초기 내각, 정책보다 진영 논리가 앞섰던 국정 운영. 이러한 전임자의 독단적 인사, 불통, 강경 일변도 정책 추진 등 '비호감 리더십'은 지금의 이 대통령을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소통하는 지도자로 보이게 만들었다.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호평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상대적 안정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타운홀식 배치, 장시간 질의응답, 비판을 피하지 않는 태도까지, '변화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중요한 건 기저효과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은 빠르게 지워지고, 국민의 기대치는 높아진다. 이 대통령은 이제 비교 대상 없는 독자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내각 구성, 노동 정책, 외교 현안, 검찰 개혁 등 고차방정식이 가까운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검찰 고위 인사와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조국혁신당 등 개혁 세력은 불만을 터뜨렸다.

진짜 리더십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이 대통령 역시 이를 인식하는 듯하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만의 색깔을 고집하면 남는 사람이 없다"며 포용 인사를 강조했고, 야당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보다 낫다"는 평가에 안주한다면 이 대통령 역시 실패한 지도자로 기록될 수 있다. '준비된 리더'란 말은 후보 시절엔 유효하지만, 대통령의 자리에선 성과로만 증명된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받는' 대통령에서 벗어나, '이재명이기 때문에 신뢰받는'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 박성원 편집국장

대통령 기저효과

| | | | |
|--------------------------------|--|---------------|----------------------|
| 全南日報 |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 논설실장 이용환 | 편집국장 박성원 |
|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 대표전화 | (062)527-0015 | 경영지원팀 (062)510-0421 |
| | 기사제보 | (062)510-0331 | 광고영업팀 (062)519-0710 |
| | 편집부 | (062)510-0412 | 문화체육부 (062)510-0351 |
| | 취재1부 | (062)510-0380 |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
| | 취재2부 | (062)510-0394 | 사진부 (062)510-0391 |
| www.jnilbo.com m.jnilbo.com | 정치부 | (062)510-0340 | |
|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 1988년 4월 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 | |
| 구독신청 (062)510-0471 | 광고문의 (062)512-0100 | | |
| FAX (062)510-0436 | 서울지사 (02)725-8890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